

2021년 3.8

# 여성의 날 소책자

광주 페미니스트 공동행동

광주 여성민우회 X 광주 학생행진

용봉편집위원회 X 페미니즘 학회 F:ACT

# 목차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에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행동!*

## 1) 광주 여성민우회 대자보 ----- 3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젠더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응답하라!

## 2) 광주 학생행진 대자보 ----- 6

심각한 여성 고용 위기, 사회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 3) 용봉편집위원회 대자보 ----- 9

여성 고용위기, 격차를 넘어 진정한 평등으로!

## 4) 페미니즘 학회 F:ACT 대자보 ----- 12

누구도 '아내'가 되지 않는 사회

#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젠더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응답하라!



출처 : 프레시안

지난 해부터 코로나 19로 전 인류가 재난 상황에 빠졌지만 우리는 더 큰 재난을 앞두고 있다. 지구의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성장,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산업화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임계치에 도달했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했을 때 지구는 엄청난 대란에 빠질 것이고 인류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1도 상승했고, 0.5도를 막아내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고, 2050년이 되기 전에 탄소제로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구는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특히, 기후악당으로 손꼽히는 한국,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과감하면서도 시급한 대책과 실천이 나와야 할 때이다.

최근 몇 년사이 여러 나라에서 겪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재해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재해는 사회적 약자를 더 고립시키고,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국가별, 성별, 연령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특히, 여성들은 지진, 쓰나미, 불볕더위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남성에 비해 70% 전후로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젠더 폭력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심각할 정도이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다. 여성들은 긴급상황에서 아이와 노약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난하기 어렵고, 피난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교통, 정보, 은신처 등)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재난상황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부여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낮은 경제적 지위 등의 젠더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문맹율도 높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의

출처 : 그린피스

무를 지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은 가난과 노동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해질 여성차별과 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후위기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접근하는 방식과 구조에 젠더관점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할 이유이다. 또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재난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열쇠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으로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뉴딜정책은 여전히 개발중심, 기업중심의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대량해고 등으로 빚어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논의 테이블에는 여전히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구조적, 내용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큰 전제에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일하면서 최소한의 인권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구조시스템의 전환이면서 노동과 인권,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21. 3.3**

# **광주 여성 민우회**

# 심각한 여성 고용 위기, 사회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출처 : 베이비 타임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은 여성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의 피해는 여남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으나, 그 양상은 다르다. 남성들은 불안정 취업이 늘면서 노동시장 경계에 있는 질 낮은 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아예 노동시장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1년 1월, 여성 실업자는 78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만 명(48.6%)이나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한 구직단념자 중 60%는 여성이었으며, 구직단념자 증가 폭은 65%로 남성 구직단념자 증가 폭인 25%를 훨씬 웃돌았다. 3월, 겨울은 끝나가고 봄이 오는 시기나 여성에게 취업 시장의 벽은 무심하게, 또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여성의 고용 위기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직접 타격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서비스업은 직접적인 고용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까?

또 서비스업에 여성이 더 많이 포진해 있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의 보건 의료적 특징도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자 보호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0~50대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그나마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서비스업이다. 중년 여성들은 20~30대에 '으레 여성이 출산하고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 또한 '으레 여성이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서비스업이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고용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 노동자 다수가 2차 노동시장의 질 낮은 일자리에 진입하고 고용 위기가 불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퇴출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견지하고 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사회운동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우선 정부는 직업 상담 및 훈련 교육, 취업 연계와 알선, 인턴 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와 디지털 경제, 특히 플랫폼노동에서 여성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여성 일자리는 여전히 유연한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한 지금의 정책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이 주류로, 육아휴직 지원이나 돌봄 지원, 기업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이 그 일환이다. 이는 전체 여성이 아닌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소수의 젊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소수의 여성만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여성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여성을 차별·배제하거나, 다수의 여성을 노동시장 경계 외부로 몰아낸다. 특히, 경력단절을 겪은 후 재진입한 일자리가 주로 단순노무직과 판매 서비스직인 중장년 여성을 또다시 저임금 직군으로 내몬다. 다양한 여성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정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심화한 고용 위기를 예비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 노동의 권리. 사회운동이 확장하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거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여성권

과 노동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확장해야 하는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운동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제어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고용불안을 축소하기 위해 공동의 요구를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아내야 한다. 이로써 고용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문제 등에 집단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글로리아 슈글 레바

우리는 지난 수년간 톨게이트와 신영프레시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LG트윈타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임신·출산·양육을 한다는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은 차별당하고 저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업난이 발생하면 여성이 먼저 해고당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실업에 취약하고 고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구조를 돌아보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도록 정부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자! 나아가 사회운동이 여성들을 조직하고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제기하자!

## 2021. 3.3 광주전남 학생행진



# 여성 고용위기, 격차를 넘어 진정한 평등으로!

경제위기와 고용한파가 오래도록 휘몰아치고 있다. 실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중에 특히 여성의 상황이 심각하다. 통계청의 '2020년 2월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일시 휴직자가 61만 8000명인데 이 중 62.8%인 38만 8000명이 여성이었다. 3월 한 달간 주로 요양, 돌봄, 급식, 청소,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해고가 50~60% 이상 급증했고, 11만 5000여 명이 실직했다고 한다. 고용위기로 모두가 신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위기는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 여성노동자의 현위치는 어떠한가

1900년대 초, 서양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잇단 파업과 투쟁이 있었다. 이를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이 2021년의 오늘에 이른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코로나 19라는 위기 앞에 여성은 명백한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대체되기 쉬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돌봄노동, 콜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감염병 위기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취업시장의 벽은 여성에게 더욱 두꺼워져 고용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여성의 고용위기는 코로나19로 반짝 떠오른 문제가 아니다. IMF 구제금융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뒷받침하듯, 코로나 이전에도 여성의 고용은 불안전했다. IMF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여성에게 돌아갔고, 같은 시기,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다. 2008년에도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고용안정성, 복지의 격차가 심화되고 견고해졌다.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여성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열악한 일자리로 복귀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과 그것에서 비롯된 여성 노동의 저평가와 함께 고착화되었다. 여성은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열등한 인력이자 가정을 돌보느라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인력, 고용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겨져, 단시간으로 계약 당하거나 손쉽게 해고된다. 여성이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 19 이후 심화되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 이전부터 깊게 드리워진 문제이다.

###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엔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더 대우받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는 고용시장 내 성별 격차가 우리 사회에 교묘히 가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장 내 성차별 근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크게 벌어진 격차를 좁힐 수 없었고, 오히려 격차를 장막으로 가리는 시도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가 장막으로 가려짐으로써 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한 것이고, 성차별은 그저 ‘옛말’이 되었다.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단기 일자리 도입과 같은 정책은 또다시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해결해줄 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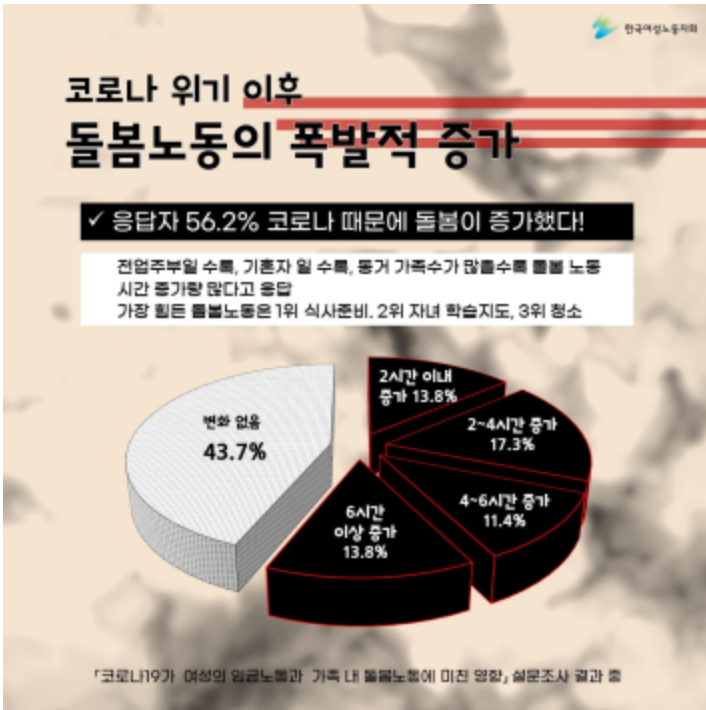
출처 : CoCoArt\_Ua

### 진정한 평등을 위해!

취업시장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지금.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과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고민이다. 고용시장 내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며, 그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 또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가려진 격차 속에서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 되어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려진 격차를 드러낼 방법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격차를 숨기려는 정부에게 기대어서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불안정한 일자리의 해소를 위해, 사회 내 존재하는 격차의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등’을 위해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자!

**2021. 3.3**  
**전남대 용봉편집위원회**

# 누구도 '아내'가 되지 않는 사회



코로나19는 인류의 일상을 바꾸었다. 사람들의 생활반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되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아동과 청소년은 등교하는 대신 화상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일상이 크게 변하면서 많은 사람과 산업들이 위기를 맞았다.

출처 : 한국여성노동자회

국가는 국민들을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 유지, 소득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많은 이들의 생활반경이 집으로 고정되어 돌봄노동의 강도는 더욱 높아짐에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은 허무할 정도로 부족해 보인다.

코로나 방역 수칙의 기본적 전제는 밖에 다니지 말고 '집으로 가라'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돌봄노동은 사회의 필수적 가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가정의 여성에게 이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지금, 집에서 이를 지도하고 돌보는 일은 모두 '엄마'가 떠맡게 된다. 이전에도 '임출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어왔던 여성의 상황은 코로나 이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성들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라는 기대를 남성들보다 더 높게 요구받았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강도가 더해졌다. 그 결과로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더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의 임금노동자의 기준은 가정에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아내’가 있는 남성이다. 그렇기에 집에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아내’가 없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때문에 여성은 집과 회사에서 이중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돌봄노동에 대한 전환을 맞이하여야 한다.

임금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하던 시대에서 모두가 돌봄노동을 수행하며 임금노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돌봄을 가정에게, 가정의 여성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돌봄노동을 수행할 것이고, 누구에게나 돌봄노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없던 사회문제와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간의 굶아왔던 모순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드러난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닌 해결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 **2021. 3.3**

# **전남대 페미니즘 학회 F:ACT**